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정수경전

작자 미상 · 국문 고전소설 · 공안소설 · 송사소설
2026년 9월 고1 · G202609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609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남은 세 번의 운수 → 귀향을 권하는 점쟁이

1



2



3



남은 세 번의 운수 → 어머니를 들어 청함 → 귀향을 권하는 점쟁이

1. 남은 세 번의 운수 [1] [2]

표정을 굳힌 점쟁이가 지나간 위기 하나와 앞으로의 셋을 구분한다. 예고는 뒤의 사건에 긴장을 부여하되 각 위기의 구체적 경위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.

2. 어머니를 들어 청함 [4] [5]

수경은 흙빛이 되어 절하며 어머니가 겪을 일을 가정한다. 얼굴빛은 두려움을, 절과 울음은 간절함을 드러낸다. 운수에 달렸다는 첫말만 떼어 체념으로 판단하면 뒤의 요청을 놓친다.

3. 귀향을 권하는 점쟁이 [8]

운수를 마음대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설의로 강조한 뒤 귀향을 권한다. 어머니를 만나면 액이 풀린다는 처방이 아니다. 거절 뒤 다시 간청하는 흐름을 읽는다.

암기 그림 2 · 두 사람의 목숨 → 세 번째 위기와 누명

4



5



6



두 사람의 목숨 → 누런 대나무 그림 → 세 번째 위기와 누명

4. 두 사람의 목숨 [9] [10]

홀어머니를 모신 외아들이라는 사연이 첫 간청의 논거를 구체화한다. 두 사람은 수경과 어머니이며, 자신이 살아야 어머니도 살 수 있다는 연결로 요청의 무게를 더한다. 그림의 주변 인물 수를 근거로 점쟁이가 둘이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.

5. 누런 대나무 그림 [11] [12]

흰 종이·누런 색·대나무가 나중에 백·황·죽으로 풀이된다. 이때 전달되는 것은 보관과 사용 지시이고 이름의 뜻은 아직 설명되지 않는다. 그림은 뒤의 해독을 기다리는 단서이다.

6. 세 번째 위기와 누명 [13] [14]

앞의 두 액은 가까스로 면할 수 있으나 세 번째는 더 어렵다고 구분한다. 중략은 두 위기의 상세 경위를 생략하고 누명을 연결한다. 그림의 사용 시점과 조력자의 등장이 예고에 대응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화복길흉

뜻 재앙과 복, 궂은 일과 좋은 일.

배경 그림의 험한 길과 평온한 집은 화와 복의 개념 대비이며, 발췌에 나온 별도 사건을 재현한 것은 아니다.

작품 속 쓰임 운수를 인정한 뒤 그렇지만으로 전환하여 도움을 구한다.



2. 방책

뜻 일을 풀어 갈 방법과 꾀.

배경 여럿이 방법을 의논하는 그림은 방책의 개념 예시이다. 수경의 실제 요청 상대는 점쟁이이다.

작품 속 쓰임 죽을 액을 막을 방도를 구한다. 그림과 사용 지시로 응답을 받는다.



3. 혈혈단신

뜻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홑몸.

배경 홀로 걷는 모습은 외로움을 나타내는 개념 예시이다. 수경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.

작품 속 쓰임 어머니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. 일찍 부친을 여의고 형제 없이 홀어머니를 모신 처지이다.



4. 천만요행

뜻 아주 다행스럽게 운이 따름.

배경 비바람을 피한 모습은 요행의 개념 예시이며 중략된 두 위기의 구체적 사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

작품 속 쓰임 앞의 두 위기를 가까스로 면할 가능성. 본문은 시험지의 千萬要行을 보존했고 그림의 千萬僥倖은 일반 표기이다.



5. 존전

뜻 지체 높은 이의 앞자리.

배경 높은 사람 앞에 선 모습을 통해 존전의 뜻을 나타낸 개념 예시이다.

작품 속 쓰임 백황죽이 대감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이다.



6. 수청

뜻 지체 높은 이를 곁에서 모시는 일.

배경 높은 사람 곁을 모시는 모습으로 수청의 문맥상 뜻을 보여 준다.

작품 속 쓰임 총명함을 아껴 맡긴 일이다. 이 문맥에 다른 뜻을 끌어와 성적 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[1]~[14]의 전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수경은 이미 한 위기를 넘겼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 나머지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.

② 점쟁이는 귀향을 액막이 방법으로 제시하고, 수경은 이를 실행할 때 필요한 물건을 구한다.

③ 수경은 홀어머니의 처지를 들어 거듭 도움을 구하고, 그림을 받은 뒤 중략에서 두 위기를 넘긴 것으로 제시된다.

④ 점쟁이는 두 번의 위기를 면한 수경을 만나 마지막 위기에서 사용할 그림을 전달한다.

⑤ 수경은 혼인 때 그림의 이름을 읽은 뒤 그 이름을 점쟁이에게 확인하여 누명을 해명한다.

2. [5]의 [A]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자신의 죽음 뒤 모친이 겪을 일을 가정하여 상대의 동정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.

② 모친을 모셔 온 공적을 제시하여 방책을 알려 줄 의무가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한다.

③ 운수에 관한 상대의 판단을 반박하여 죽을 위기가 남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.

④ 앞의 위기를 넘긴 경험을 근거로 상대의 방책을 검증할 기준을 제시한다.

⑤ 모친의 걱정을 덜기 위해 귀향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그 결심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.

3. [11]~[13]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수경과 모친의 관계를 나타내어 두 사람의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증표이다.

② 앞의 두 위기에서 그림을 사용한 경위를 수경에게 회상하게 하는 물건이다.

③ 죽을 운수의 횟수를 표현하여 남은 위기를 수경 스스로 계산하게 한다.

④ 호패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옮겨 수경이 관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기록이다.

⑤ 뒤의 위기에서 구제자를 만날 때 쓰도록 주어지며 의미는 소저의 해독을 통해 밝혀진다.

4. [15]~[20]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?

① 대감은 백황죽의 집안 배경을 인정하여 자신의 곁에서 수청을 들게 한다.

② 관원은 아이에게 수청의 경위를 듣고 백황죽을 체포한 뒤 소저의 말에 따라 호패를 확인한다.

③ 아이는 백황죽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여 관원의 체포를 이끈다.

④ 소저는 호패의 이름을 읽고 나서 백황죽이라는 인물을 처음 체포 대상으로 정한다.

⑤ 관원은 대감의 신임을 의식하여 백황죽의 결박을 미루고 소저에게 허락을 구한다.

5. 이 소저의 [23]~[24]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노복은 정 한림이 몸을 숨긴 것을 보고 살해 대상을 바꾸어 김 소저를 죽였다.

② 정 한림은 자신을 변호할 증인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병풍 뒤에 몸을 숨겼다.

③ 김 소저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가 증언을 피하여 정 한림의 해명이 어려워졌다.

④ 정 한림을 죽이려던 노복의 행동이 다른 피해자를 낳았고, 살아남은 정 한림에게는 증인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했다.

⑤ 정 한림은 한밤중에 신방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행적을 입증하지 못했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